

문간의 방문자

The Thing on the Doorstep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Thing on the Doorstep" (Weird Tales
1937년 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230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간의 방문자

괴기 소설의 거장 중 한 명이 써 내려간 강렬한 이야기다. 공포는 서서히 스며들며 몸집을 불리다가, 마침내 그 끔찍한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며 독자를 덮칠 것이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머리에 여섯 발의 총알을 박아 넣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기록을 통해 내가 그의 살인자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아컴 정신병원 독방에서 내가 총을 쏜 그 사내보다 더 미친놈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독자 중 누군가는 나의 서술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미 알려진 사실들과 대조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증거, 즉 문간에 나타난 그 존재를 마주한 뒤에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되물으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전까지 내가 행동에 옮겼던 그 기괴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 역시 광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자문하곤 한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된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나 자신이 미쳐버린 것인지 말이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에드워드 더비와 아세나스 더비에 대해 기이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침착하기로 유명한 경찰들조차 그 마지막의 끔찍한 방문을 설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들은 해고된 하인들이 벌인 끔찍한 장난이나 경고였다는 식으로 어설픈 가설을 꾸며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믿기 힘든 무언가라는 사실을.

그러니 나는 에드워드 더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복수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 인류 전체에 해아릴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를 어떤 괴물을 이 세상에 몰아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바로 곁에는 칠흑 같은 그림자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때때로 사악한 영혼이 그 경계를 뚫고 침입해 들어온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면, 진실을 아는 자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먼저 그 존재를 처부수어야만 한다.

나는 에드워드 픽먼 더비의 평생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나보다 여덟 살 어린 그는 매우 영특하여, 그가 여덟 살이고 내가 열여섯 살이었던 시절부터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는 내가 아는 아이들 중 가장 경이로운 학자였다. 일곱 살 무렵에는 이미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워낙 침울하고 환상적이며 거의 병적인 기운마저 감돌아 그를 가르치던 가정교사들을 경악게 할 정도였다. 아마도 그의 초기 교육과 과잉보호 속에 이루어진 은둔 생활이 이토록 이른 시기에 그를 꽃피우게 했을지도 모른다. 외동아들이었던 그는 선천적인 허약함을 타고났는데, 이는 그를 애지중중하던 부모를 놀라게 했고 결국 부모가 그를 곁에 꼭 묶어두게 만들었다. 그는 유모 없이는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다른 아이들과 구애받지 않고 뛰어놀 기회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년의 내면에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삶을 키워냈고, 소년에게 유일한 자유의 통로가 되어준 것은 오직 상상력뿐이었다.

어쨌든 그의 어린 시절 학습 능력은 경이로울 만큼 비범했다. 게다가 그가 거침없이 써 내려간 글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내가 읽기에도 매혹적일 정도였다. 당시 나는 다소 기괴한 예술 분야에 심취해 있었기

에, 이 어린 소년에게서 보기 드문 동질감을 느꼈다. 그림자와 경이로운 것들을 함께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살던 오래되고 곱팡이 핀, 그리고 은밀하게 공포스러운 마을이 있었다. 마녀의 저주를 받았으며 전설이 떠도는 아컴, 그곳은 어둡게 속삭이는 미스카토닉 강가에 웅기종기 모여 내려앉은 박공지붕과 허물어져 가는 조지아 양식의 난간들이 수 세기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건축학으로 전향했다. 에드워드의 악마적인 시집을 삽화로 꾸미려던 계획도 접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젊은 더비의 기묘한 천재성은 눈부시게 발현되었다. 그는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악몽을 노래한 시들을 모아 『아자토스와 그 밖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출간했고, 이 시집은 세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악명 높은 보들레르풍의 시인 저스틴 제프리와도 긴밀히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제프리는 『모놀리스의 사람들』을 썼으나, 헝가리의 불길하고 악명 높은 어느 마을을 방문한 뒤 정신 병원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가 숨을 거둔 것은 1926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더비는 지나치게 과잉 보호받으며 자란 탓에, 자립심이나 실무적인 일에는 매우 무지했다.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부모의 지나친 보살핌이 아이 같은 의존성을 키워놓은 탓이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어떤 책임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그가 비즈니스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을 견뎌낼 재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가문의 재산이 워낙 막대했기에 이는 비극이 되지 않았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소년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 사람들을 기만하곤 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그는 아이처럼 생기 있는 안색을 유지했고, 콧수염을 기르려는 시도조차 겨우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희미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가벼웠으며, 활동량이 적은 생활 탓에 중년의 비만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통통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키는 흰칠했고 얼굴도 잘생겨서, 만약 그가 수줍음 때문에 은둔하며 책에만 파묻혀 지내지 않았더라면 분명 눈에 띄는 신사가 되었을 것이다.

더비의 부모는 매년 여름 그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다. 덕분에 그는 유럽의 사상과 표현 방식의 표면적인 면모를 빠르게 흡수했다. 에드거 앨런 포를 연상시키는 그의 재능은 점점 더 퇴폐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술적 감수성과 갈망 또한 그에게 절반쯤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의 건축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뒤, 결혼을 하고 마침내 아키텍트로 돌아와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플로리다로 이주하셨기에, 나는 가족의 터전인 솔튼스톨 스트리트의 저택에 자리를 잡았다. 에드워드 더비는 거의 매일 저녁 나를 찾아왔고, 어느덧 나는 그를 가족 중 한 명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특유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의 암호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

는 늘 그 익숙한 소리를 기다리곤 했다. 경쾌하게 세 번을 두드린 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두 번을 두드리는 그 소리 말이다. 가끔 그의 집을 방문할 때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의 서재에 꽂힌 정채 모를 고서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 * * * *

에드워드 더비는 아침에 있는 미스카토닉 대학교를 다녔다. 부모님이 그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열여섯 살에 입학하여 3년 만에 과정을 마쳤다. 영어와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으며,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다만 '대담하다'거나 '보헤미안적'이라 불리는 무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더비는 그들의 겉치레뿐인 '세련된' 말투와 무의미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흉내 냈고, 그들의 의심스러운 행실조차 자신도 감히 따라 해보고 싶어 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빠져든 것은 지하의 마법 지식이었다. 그는 거의 광신적인 추종자에 가까울 정도로 그 학문에 몰두했는데, 미스카토닉 대학의 도서관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그런 지식들로 유명한 곳이었다. 평소에도 환상과 기이함의 표면을 맴돌던 그였으나, 이제는 후대의 인도 혹은 혼란을 위해 전설적인 과거가 남겨둔 실제 룬 문자와 수수께끼의 심연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공포스러운 『에이본의 서』 나 폰 준츠의 『말할 수 없는 교단』, 그리고 미친 아랍인 압둘 알하즈레드가 쓴 금서 『네크로노미콘』 같은 책들을 탐독했다. 물론 부모에게

는 그런 책들을 읽었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자 외동아들이 태어났을 때 에드워드는 스무 살이었다. 내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그의 이름을 따서 에드워드 더비 업튼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는 무척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에드워드가 서른네 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이후 몇 달 동안 정체 모를 기묘한 정신 질환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다. 다행히 아버지가 그를 유럽으로 데려간 덕분에, 겉으로 드러나는 후유증 없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에드워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속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탈출한 듯 기괴할 정도로 들뜬 기색을 보였다. 그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적'이라는 대학가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매우 방탕한 모임에도 참석하곤 했다. 한 번은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에게 빌린 돈으로)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 방탕하기로 유명한 미스카토닉 대학 무리에 대해 떠도는 은밀한 소문들은 무척이나 기이했다. 흑마술에 관한 이야기나,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에드워드 더비가 아세나스 웨이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여덟이었다. 내가 판단하기에 그녀는 당시 스물세 살 정도였으며, 미스카토닉 대학에서 중세 형이상학 특별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내 친구의 딸이 킹스포트의 홀 학교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세나스의 기묘한 평판 때문에 그녀를 멀리하려 했다. 아세나스는 체구가 작고 피부가 어두웠으며, 유난히 튀어나온 눈을 제외하면 매우 아름다운 외

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조차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그녀의 가문과 말투였다. 그녀는 인스머스의 웨이트 가문 일원이었다. 무너져 가는 폐허와 같고 절반쯤 버려진 인스머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 세대에 걸쳐 어두운 전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1850년경에 일어난 끔찍한 계약에 관한 이야기나, 황폐해진 그 어촌 마을의 고대 가문들 속에 섞여 있는 '인간이라 하기엔 어딘가 기이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오직 옛날 양키들만이 적절한 경외심을 담아 꾸며내고 전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아세나스의 사례가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그녀가 에프라임 웨이트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늘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정체 모를 아내 사이에서 에프라임이 노년에 얻은 아이였다. 에프라임은 인스머스의 워싱턴 가에 있는 반쯤 부식된 저택에서 살았다. 그곳을 본 사람들은(아컴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 인스머스에 가는 것을 피한다) 다락방 창문이 항상 판자로 막혀 있으며, 저녁 무렵이면 그 안에서 가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증언했다. 노인은 젊은 시절 마법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거나 잠재울 수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젊은 시절, 그가 금지된 고서들을 찾아 아컴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한두 번 그를 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잿빛 수염이 엉망으로 엉킨 그의 늑대 같고 침울한 얼굴이 몹시 싫었다. 그는 딸이 홀 학교(Hall

School)에 입학하기 직전, 다소 기묘한 상황 속에서 미쳐버린 채 사망했다. 에프라임은 유언을 통해 딸을 교장의 명목상 피후견인으로 맡겨 두었는데, 아세나스는 아버지의 병적일 만큼 열성적인 제자였으며 때때로 그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보였다.

에드워드가 아세나스 웨이트와 알고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딸을 둔 한 친구가 기이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학교 시절의 아세나스는 마치 마술사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그녀는 정말로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기묘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 뇌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곤 했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성공은 대개 예지력 같은 기묘한 재주 덕분인 듯했다. 모든 동물은 그녀를 눈에 띄게 싫어했으며, 그녀가 오른손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어떤 개든 울부짖게 만들 수 있었다. 어린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지식과 언어를 불쑥 내뱉을 때도 있었다. 또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눈빛과 윙크로 급우들을 겁주곤 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치 음란하고도 즐거운 농담처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이했던 점은, 그녀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세나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최면술사였다. 그녀는 동급생을 특이한 눈빛으로 응시하곤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마치 '인격이 뒤바뀐' 듯한 명확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다. 마치 대상의 정신이 잠시 마술사의 몸속으로 옮겨간 것처럼, 방 건너편에 있는 그녀의 실제 육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녀의 눈은 이질적인 광기로 번뜩이며 푹 붙겨져 있었다.

아세나스는 의식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의식이 육체라는 틀에서 얼마나 독립적인지에 대해 종종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늘어놓았다. 적어도 육체의 생리적 작용으로부터는 독립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격렬하게 분노했던 지점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남성의 뇌가 우주를 관통하는 독특하고도 광범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만약 남성의 뇌를 가질 수만 있다면, 미지의 힘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 아버지와 대등해질 뿐만 아니라 그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에드워드는 학생 기숙사 방 중 한 곳에서 열린 '지식인 모임'에서 아세나스를 만났다. 다음 날 나를 찾아온 그는 그녀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에드워드는 그녀가 자신을 매료시켰던 관심사와 박학다식함을 고무 갖추었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녀의 외모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였다. 나는 그 젊은 여성을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스치듯 들었던 이야기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더비가 그녀 때문에 이토록 마음을 들끓게 하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맹목적인 열정은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욱 타오르는 법이니까. 그는 아버지에게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젊은 더비로부터 아세나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제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만년에 보이는 구애에 대해 수군거렸다. 물론 그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

어 보인다는 점과, 그 기이한 여신을 수행하는 동행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말이다. 에드워드는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배가 아주 조금 나왔을 뿐이었고,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반면 아세나스의 눈가에는 강렬한 의지를 끊임없이 발휘하며 살아온 데서 생긴 조기 눈가 잔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 무렵 에드워드는 나를 찾아오기 위해 그 여자를 데려왔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여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은 기색으로 끊임없이 그를 살폈고, 두 사람의 친밀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평소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노신사, 더비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들의 새로운 교제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아들에게 끈질기게 캐물어 모든 진실을 알아낸 상태였다. 에드워드는 아세나스와 결혼할 생각이었고, 심지어 교외에 집을 구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평소 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를 떠올린 아버지는, 이 무모한 관계를 끊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며 물었다. 하지만 나는 유감을 표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만큼은 에드워드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점이었다.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에드워드는 부모라는 존재에게 의지하던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더 강력하고 새로운 존재에게 그 의존성을 옮겨버린 상태였다. 그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한 달 뒤, 신부의 요청에 따라 치안판사의 주례 아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나의 조언에 따라 더비 씨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더비 씨와 내 아내, 내 아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른 하객들은 대학의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 아세나스는 하이 스트리트 끝자락에 있는 시골의 오래된 크라운 실드 저택을 구입했다. 두 사람은 인스머스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뒤 그곳에 정착할 계획이었다. 인스머스에서는 하인 세 명과 책, 그리고 가재도구들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다. 아세나스가 고향으로 영영 돌아가는 대신 아침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아마도 에드워드와 그의 아버지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대학과 대학 도서관, 그리고 그곳의 '지식인' 무리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에드워드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가 어딘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세나스는 그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콧수염을 깎게 했지만,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아이처럼 반항적으로 내밀고 다니던 특유의 입술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마치 진심 어린 슬픔이 서린 듯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해 당혹스러웠다. 분명한 건, 지금의 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어쩌면 결혼이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습성이 변하면서, 마침내 책임감 있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

그는 혼자 찾아왔다. 아세나스는 매우 바쁜 상태였다. 그녀는 인스머스에서 방대한 양의 서적과 도구들을 가져왔는데(더비는 그 지명을 입에 올리며 몸서리쳤다), 현재 크라우닌실드 저택과 부지의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그 마을에 있는 그녀의 집은 꽤나 불편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놓인 몇몇 물건들은 그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다. 아세나스의 인도를 받게 된 이후, 그는 비전(秘傳)의 지식에 빠르게 정통해 가고 있었다. 그녀가 제안한 실험 중 일부는 매우 대담하고 급진적이어서 차마 글로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과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세 명의 하인 또한 매우 기이했다. 에프라임 노인과 함께 지내온,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이 든 노부부는 가끔 에프라임과 아세나스의 죽은 어머니를 암호 같은 말로 언급하곤 했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기형적인 젊은 흑색 피부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비린내가 풍겨 나왔다.

그 후 2년 동안 나는 더비를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때로는 현관문에서 들리던 익숙한 노크 소리—세 번, 그리고 두 번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은 채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했다. 더비가 찾아오거나, 혹은 점점 드물어지긴 했지만 내가 그를 방문할 때면, 그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토록 세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하던 오컬트 연구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비밀스럽게 굴었다.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려 했다. 아내의 모습은 결혼 이후 엄청나게 노쇠해졌는데, 기이하게도 이제는 그녀가 더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정도였다. 그녀의 얼굴

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가장 지독하고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혐오감이 풍겨 나왔다. 내 아내와 아들도 나만큼이나 그 변화를 눈치챘고, 우리 모두는 서서히 그녀를 방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에드워드는 특유의 소년 같은 눈치 없는 태도로, 아내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끔 더비 부부는 긴 여행을 떠나곤 했다. 겉으로는 유럽 여행이라고 했으나, 에드워드는 때때로 더 모호한 목적지를 암시하곤 했다.

에드워드 더비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은 첫째를 넘긴 뒤였다. 변화의 양상이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 내용은 꽤 흥미로운 지점들을 시사했다. 이따금 에드워드가 평소의 나약하고 흐리멍덩한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한다는 목격담이 들려왔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운전조차 제대로 못 했을 그가, 이제는 아세나스의 강력한 패커드 자동차를 몰고 크라우닌실드 저택의 진입로를 거침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운전사처럼 차를 다루었으며,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도 평소의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과 결단력을 발휘하며 차를 몰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치 어떤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거나, 혹은 이제 막 여행을 떠나려는 참인 것처럼 보였다. 그가 주로 인스머스로 향하는 길을 택하긴 했으나, 대체 어떤 종류의 여행을 다니는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기이하게도, 그 변모가 전적으로 유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에드워드가 아내를 너무 닮았다거나, 혹은 노인 에프라임 웨이트 자신을 너무 닮았다고 수군거렸다. 아니, 어쩌면 그런 순간이 너무나 드물었기에 그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런 상태로 길을 나선 지 몇 시간이 지나면, 고용된 것이 분명한 운전사나 정비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에드워드가 무기력하게 몸을 뉘인 채 돌아오기도 했다.

또한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점차 줄어드는 사고 모임에서(나를 방문할 때를 포함해서 말이다) 보이는 그의 주된 모습은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 그대로였다. 오히려 그 무책임하고 어린아이 같은 면모는 과거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아세나스의 얼굴이 노쇠해가는 것과 달리, 에드워드는—그 예외적인 순간들을 제외하면—오히려 과장될 정도로 미성숙한 표정으로 풀어진 듯 보였다. 물론 그 얼굴 위로 새로운 슬픔이나 깨달음의 흔적이 번뜩일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사이 더비 부부는 활기 넘치던 대학가 사교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현재 몰두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무리 냉담한 방탕아들일지라도 그들조차 충격을 줄 만큼 기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에드워드는 내게 어떤 두려움과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가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식의 말을 툭툭 내뱉곤 했고, 자신의 "정체성

을 되찾아야 한다"며 어두운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의 딸이 아세나스의 최면적 영향력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학교 여학생들이 아세나스에게 홀려, 마치 자신의 몸 안에 들어가 교실 저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느꼈던 사건들 말이다.

나의 이런 질문에 에드워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무언가를 웅얼거렸다.

그 무렵 노(老) 더비 씨가 사망했다. 나중에 나는 그 죽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심하게 동요했으나, 그렇다고 정신이 나간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결혼한 이후 부모를 거의 보지 못하고 지냈다. 아세나스가 그의 가족애를 온통 자신에게만 쏟아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상실감에 대해 무심하다고 수군대기도 했다. 특히 그가 자동차를 몰며 예전처럼 경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런 말은 더 심해졌다. 그는 이제 옛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아세나스는 이미 익숙해진 크라우닌실드 저택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아내는 한 친구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친구는 더비를 외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다. 친구가 부부를 방문하려 하이 스트리트 끝자락까지 갔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진입로를 따라 빠르게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운전대를

잡은 에드워드의 얼굴은 묘하게 자신만만해 보였고,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띠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가 벨을 눌렀을 때, 그 역겨운 계집은 아세나스도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돌아서며 우연히 집 위쪽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에드워드의 서재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얼굴에 서린 고통과 패배감, 그리고 애절한 절망의 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절했다.

평소 아세나스의 오만한 성품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아세나스의 것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순간, 그 얼굴 너머로 가려난 에드워드의 슬프고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맹세했다.

* * * * *

에드워드의 연락은 이제 조금씩 잦아졌고, 그가 흘리는 암시도 때로는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가 하는 말들은 수 세기의 세월 동안 전설이 깃든 아컴에서조차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그 어두운 지식들을 쏟아냈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정신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외딴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인 주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유적과, 그 아래로 밤의 비밀이 도사리는 심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계단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벽을 통과해 다른 시공간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복잡한 각도들

에 대해, 그리고 인격이 끔찍하게 뒤바뀔으로써 멀고도 금기된 장소나 다른 세계, 혹은 전혀 다른 시공간의 연속체로 탐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늘어놓았다.

그는 때때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을 내보이며, 자신이 품은 광기 어린 암시들을 뒷받침하곤 했다. 그 물건들은 지구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기묘한 색채와 난해한 질감을 지니고 있었다. 미친 듯이 뒤틀린 곡선과 표면은 어떤 상상 가능한 용도로도 쓰일 수 없어 보였고, 그 어떤 기하학적 법칙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이 물건들이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옛날 대학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쳤던 노인, 에프라임 웨이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그는 언제나 겁에 질린 채 모호한 속삭임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암시는 결코 구체적이지 않았다. 다만 그 이야기는 노마법사가 정말로 죽었는지에 대한, 형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측면에서도 극도로 끔찍한 의구심을 중심으로 맴도는 듯했다.

때때로 더비는 폭로를 이어가다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다. 나는 아세나스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의 말을 알아채고, 그녀가 학창 시절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정체 모를 텔레파시적 최면술로 그의 말을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아세나스 역시 그가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르면서 그녀

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담긴 말과 눈빛을 보내, 더비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그가 나를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더비는 다른 곳으로 가는 척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잠시 목적지를 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찾아오는 시기는 대개 아세나스가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그는 언젠가 아세나스가 "자신의 몸 안에 멀리 가 있다"라는 기묘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인들이 그의 출입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아세나스는 나중에 항상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어떤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듯 보였다.

메인주에서 전보가 날아든 그 8월의 어느 날, 더비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상태였다. 그를 못 본 지는 두 달 정도 되었지만, "사업차" 멀리 떠나 있다는 소식은 들려왔다. 아세나스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중으로 커튼을 친 창문 너머 집 위층에 누군가 있다는 소문이 소문꾼들 사이에서 무성하게 떠돌았다. 하인들이 무엇을 사 오는지 지켜본 이들이 내뱉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체선쿵의 보안관으로부터 전보가 왔다. 숲속에서 비틀거리며 기어 나온, 엉마를 걸친 광인이 헛소리를 내지르며 나에게 보호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광인은 에드워드였다. 그는 겨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정도만 기억해 낼 수 있는 상태였다.

체선쿵은 메인주에서 가장 거칠고 깊으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숲 지대와 맞닿아 있다. 자동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기

괴하고도 위압적인 풍경 속을 하루 종일 격렬하게 흔들리며 달려야만 했다. 마을 농장의 구금 시설에서 발견한 더비는 광기와 무기력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폭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댄, 제발! 쇼고스의 구덩이! 육천 개의 계단 아래로... 가증스러운 것 중의 가증스러운 것...! 그녀가 나를 데려가게 두지 않으려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있었어. 이아! 슈브 니구라스! 제단 위로 형체가 솟아올랐고, 오백의 존재가 울부짖었어. 후드를 쓴 존재가 '카모그! 카모그!'라고 울부짖었는데, 그건 그 마녀의 집회에서 에프라임 노인이 쓰던 비밀 이름이었어. 그녀가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었던 거야. 서재에 갇히기 불과 일 분 전이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내 몸을 끌고 간 그녀가 있는 그곳에 와 있었어. 신성 모독이 가득한 곳, 검은 영역이 시작되고 감시자가 문을 지키는 그 불경한 구덩이 말이야! 쇼고스를 봤어. 그놈은 형체를 계속 바꾸더군.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만약 그녀가 나를 다시 그곳으로 보낸다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 존재를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녀든, 그놈이든, 그것이든... 반드시 죽일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삽화: "쇼고스의 구덩이! 6,000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마주하게 될... 가증스러운 가증스러움."]

그를 진정시키는 데 한 시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그는 기운이 빠진 듯 잤아들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에서 그에게 입힐 멀끔한 옷을 구한 뒤, 그를 데리고 아검으로 향했다. 히스테리 섞인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그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었으나, 차가 어거스타를 통과할 때쯤에는 다시 혼잣말로 어둡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도시의 풍경이 불쾌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아내에 대해 그가 품고 있는 기괴한 망상을 생각하면, 그 망상은 분명 그가 겪었을 실제적인 최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기에, 차라리 집에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나는 판단했다. 아세나스와 어떤 불쾌한 마찰이 생기더라도, 당분간은 내가 직접 그를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그가 이혼하는 것을 돕기로도 했다. 이 결혼 생활은 그에게 있어 분명 자살 행위나 다름없게 만드는 정신적인 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시 탁 트인 교외로 접어들자 더비의 중얼거림도 잦아들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내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해 질 녘 포틀랜드를 가로질러 질주하던 중, 중얼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소리였다. 귀를 기울이자 아세나스에 관한 완전히 미친 소리들이 줄지어 흘러나왔다. 아세나스가 에드워드의 신경을 얼마나 갇아먹었는지 그 정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그녀를 중심으로 온갖 환각을 엮어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겪는 곤경이 그 저 길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은밀하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자신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녀는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를 놓아주는 것일 터였다. 한 번에 오래 붙들고 있을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몸을 빼앗아 이름 모를 의식을 치르러 이름 모를 곳으로 떠났고, 그의 정신을 그녀의 몸 안에 가둔 채 그를

위층에 가두어 두곤 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가 버티지 못할 때면, 그는 갑자기 낮설고 끔찍하며 어찌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곳에서 자신의 몸을 되찾곤 했다. 어떤 때는 그녀가 다시 그를 붙잡았고, 어떤 때는 붙잡지 못했다.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는 종종 어딘가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매번 그 무시무시한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야 했고, 차를 발견하면 누군가에게 운전을 부탁해야만 했다.

가장 끔찍한 점은 그녀가 그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남자가 되기를,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를 붙잡은 이유였다. 그녀는 그의 정교하게 짜인 지성과 나약한 의지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언젠가 그녀는 그를 몰아내고 그의 육신을 차지한 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위대한 마법사가 되기 위해 사라진 뒤, 그를 온전한 인간조차 아닌 저 여자의 껍데기 속에 유기해 버릴 것이다. 그렇다, 그는 이제 인스머스의 혈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바다에서 온 존재들과 거래가 있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리고 노인 에프라임도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늙어서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영원히 살기를 원했다. 아세나스는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미 한 차례의 성공적인 시연이 이루어졌다.

더비가 종얼거리는 소리에 나는 그를 자세히 살피려 고개를 돌렸다. 아까 보았을 때 느꼈던 변화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평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몸은 더 단단해졌고 더 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었으며, 게으른 습관 때문에 생겼던 병적인 물렁함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인생에

서 처음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운동을 한 사람 같았다. 아세나스의 강압적인 힘이 그를 평소와는 다른 활동적이고 기민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정신 상태는 가련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그는 아내에 대해, 흑마법에 대해, 그리고 노(老) 에프라임에 대해 횡설수설 하며 미친 소리를 내뿜었다. 나조차도 믿게 만들 만한 어떤 계시가 있다며 헛소리를 이어갔다. 그가 내뿜는 이름들은 내가 예전에 금서들을 뒤적이며 보았던 것들이라 익숙했다. 게다가 횡설수설하는 와중에도 신화적인 일관성, 즉 설득력 있는 논리가 미세하게 흐르고 있어 때때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는 마치 마지막의 그 끔찍한 폭로를 위해 용기를 끌어모으려는 듯, 몇 번이고 말을 멈추곤 했다.

“덴, 덴,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겠어? 그 광기 어린 눈빛과 결코 백발이 되지 않던 그 지저분한 수염을 말이야. 그가 한 번 나를 노려보았는데, 난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어.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그런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어. *이유도 알고 있지!* 그가 《네크로노미콘》에서 찾아낸 거야. 바로 그 주문을 말이야. 아직 몇 페이지인지 말할 용기는 안 나지만, 때가 되면 알려줄게. 그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무엇이 나를 집어삼켰는지 알게 되겠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몸에서 몸으로, 몸에서 몸으로…… 그는 결코 죽지 않으려 해. 생명의 불꽃 말이야. 그는 그 연결 고리를 끊는 법을 알고 있어. 몸이 죽은 뒤에도 그 불꽃은 한동안 깜빡이며 남아 있을 수 있지. 내가 힌트를 줄 테니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들어봐, 덴.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유난을 떨며 그 바보 같은, 뒤로 비스듬히 눕힌 글씨체를 고집하는

지 알아? 옛날 에프라임의 원고를 본 적이 있어? 아세나스가 휘갈겨 쓴 메모를 보고 내가 왜 몸서리쳤는지 알고 싶어?”

“아세나스라니—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한 건가요? 왜 사람들은 늙은 에프라임의 위장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반쯤 확신했던 거죠? 왜 길먼 일가는 그가 미쳐버렸을 때 지르던 비명에 대해 수군거리는 건가요?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질렀다고 말이죠. 아세나스가 그를 다락방의 방음실에 가두었을 때 말입니다. 그곳은—다른—그 존재가 머물던 곳이었죠. 정말로 갇힌 것이 늙은 에프라임의 영혼이었나요? 대체 누가 누구를 가둔 겁니까? 그는 왜 몇 달 동안이나 명석한 두뇌와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 헤맸던 거죠? 왜 그는 딸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주했던 건가요? 말해줘요, 대니얼 업튼—그 신성모독적인 괴물이 자신의 믿음직하면서도 의지가 약하고, 반인간적인 자식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그 공포의 집에서, 대체 어떤 악마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 괴물은 결국 모든 것을 영구히 고착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요? 마치 그녀가 결국 나에게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발 말해줘요. 아세나스라 자칭하는 그 존재가, 경계심을 늦추었을 때 왜 글씨체를 다르게 써서 당신조차 그 필적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더비는 미친 듯이 말을 내뱉으며 가느다란 비명에 가까운 고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돌연 기계적인 클릭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가 뚝 끊겨버렸다. 나는 예전에 우리 집에서 그가 속

내를 털어놓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나는 아세나스의 모호한 텔레파시가 개입해 그를 침묵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끔찍했다. 내 곁에 있던 그의 얼굴은 잠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렸고, 온몸에는 떨림이 일었다. 마치 뼈와 장기, 근육과 신경, 그리고 모든 선(腺)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와 압력,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격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 지독한 공포가 정확히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는 죽어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를 덮친 것은 구역질과 혐오감이 뒤섞인 거대한 파도였다. 온몸이 얼어붙고 돌처럼 굳어버릴 듯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질감과 기괴함이 몰려왔다. 나는 키를 쥔 손에 힘을 잃고 비틀거렸다. 내 곁에 선 형체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기보다, 저 먼 우주에서 침입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악의적인 우주적 힘이 응집된, 저주받고 가증스러운 존재였다.

잠시 주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채 몇 초가 지나기도 전에 동행인은 운전대를 낚아채더니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했다. 황혼은 이미 짙게 깔려 있었고, 포틀랜드의 불빛은 저 멀리 뒤흔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번뜩이는 눈빛만큼은 경이로울 정도로 강렬했다. 나는 그가 지금 그 기묘한 활력에 사로잡힌 상태를 직감했다. 평소의 그와는 전혀 다른, 많은 이들이 이미 눈치챈던 바로 그 상태 말이다. 평소 자기주장 하나 못 하고 운전조차 배운 적 없던 무기력한 에드워드 더비가, 내 차의 운전대를 뺏어 들고 나에게 이

래라저래라 명령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한 광경이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나는, 차라리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비드퍼드와 새코의 불빛 아래로 그의 굳게 다문 입술이 보였다. 번뜩이는 그의 눈빛을 마주하자 나는 몸서리쳤다.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 그가 이런 기분에 사로잡힐 때면, 아내나 노인 에프라임 웨이트와 지독할 정도로 닮아 보였다. 사람들이 왜 그를 꺼려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의 상태에는 분명 부자연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들어온 광기 어린 헛소리들 때문에, 그 불길한 기운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알고 지낸 에드워드 픽먼 더비였음에도, 눈앞의 이 남자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마치 검은 심연에서 불쑥 침입해 들어온 존재 같았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도로에 들어설 때까지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목소리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했으며, 결단력이 넘쳤다. 억양과 발음 또한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느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불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음색에는 아주 깊고 진실한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더비가 평소에 부리던, 철없는 세련된 척을 하려는 가볍고 무의미한 농담조의 냉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엄숙하고 근원적이며, 온몸을 파고드는 듯한

불길한 악의가 느껴지는 냉소였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토록 태연자약하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업튼, 아까 내가 발작을 일으킨 건 잊어주길 바라네.” 그가 말했다. “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한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런 일쯤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그나저나 집까지 태워다 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 혹은 세상만사에 대해 내가 했던 미친 소리들도 전부 잊어주게. 내 전공 분야를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네. 내 철학 체계에는 기괴한 개념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정신이 피로해지면 온갖 망상적인 구체적 사례들을 멋대로 만들어내곤 하거든.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겠네. 아마 한동안은 자네 눈에 띄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아세나스를 탓하지는 말아주게.”

“이번 여행은 좀 기묘하긴 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일이야. 북쪽 숲에 인디언 유물들이 좀 있거든. 선돌 같은 것들 말이야. 민속학적으로 꽤 의미가 깊은 것들이라, 아세나스와 내가 그 흔적을 쫓고 있어. 워낙 고된 탐색이었던 탓에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집에 돌아가면 사람을 시켜서 차를 좀 보내야겠어. 한 달 정도 폭 쉬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대화 중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옆자리에 앉은 이가 풍기는 기이하고 이질적인 분위기에 온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형언할 수 없는 우주적 공포가 매 순간 나를 짓눌렀고, 결국 나는 이 주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갈망하며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상태

에 빠져들었다. 더비는 운전대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고, 나는 포츠머스과 뉴버리포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 속도가 그저 반가울 뿐이었다.

주요 간선 도로가 내륙으로 꺾이며 인스머스를 비껴가는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운전사가 그 저주받은 곳을 관통하는 황량한 해안 도로로 들어설까 봐 내심 두려웠다. 다행히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로울리와 입스위치를 빠르게 지나쳐 목적지를 향해 질주했다. 자정 전 야컴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크라운인실드 저택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더비는 서둘러 감사를 표하며 차에서 내렸고,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홀로 집을 향해 운전했다. 그 여정은 끔찍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에 더욱 끔찍했다. 그래서 나는 더비가 내 곁을 오랫동안 비울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 후 두 달 동안은 온통 소문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에드워드 더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자주 목격된다고 떠들어댔고, 아세나스 웨이트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에드워드가 나를 찾아온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는 메인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자신의 차를 다시 찾아 타고 잠시 들러, 내게 빌려주었던 책 몇 권을 가져갔다. 그 역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그저 회피하듯 예의를 차리는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게 전부였다. 그런 상태의 그에게 나와 나눌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심지어 그는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가 늘 하던 그 특유의 신호조차 생략했다. 차 안에서 겪었던 그날 저녁처럼,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하고도 끝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래서 그가 서둘러 떠났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9월 중순, 더비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타락한 대학가 무리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은밀한 이야기가 오갔다. 그들은 최근 영국에서 쫓겨나 뉴욕에 본거지를 마련했다는 악명 높은 사이비 교주와 더비가 만난 것이 아니냐며 넌지시 암시했다. 하지만 나는 메인주에서 겪었던 그 기괴한 여정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내가 목격한 그 변모는 내 정신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나는 그 일과, 그것이 내게 불러일으킨 극심한 공포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 몇 번이고 애를 썼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소문은 오래된 크라운인실드 저택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에 관한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 같았는데,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세나스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흐느낌은 아주 가끔씩만 들려왔으며, 때로는 누군가 강제로 막는 것처럼 갑자기 끊기기도 했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돌았으나, 어느 날 아세나스가 거리로 나와 수많은 지인과 활기차게 담소를 나누면서 그 소문은 잦아들었다. 그녀는 최근에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보스턴에서 온 손님이 신경쇠약과 히스테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덧붙였다. 그 손님의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지만, 아세나스의 모습이 워낙 멀쩡했기에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다 누군가 그 흐느낌이 한두 번은 남자의 목소리였다고 속삭이는 바람에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다.

10월 중순의 어느 저녁, 현관문에서 익숙한 '세 번과 두 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직접 문을 열자 계단에 에드워드 더비가 서 있었다. 나는 즉시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체선 쿡에서 돌아오던 그 끔찍한 여정 중, 그가 미친 듯이 횡설수설하던 날 이후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승리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으로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의 뒤로 문을 닫자,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어깨너머를 힐끔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를 서재까지 따라오더니, 진정할 위스키를 좀 달라고 청했다. 나는 굳이 캐묻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아세나스가 떠났어, 댄. 어젯밤 하인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긴 대화를 나눴지. 그러면서 그녀에게 더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어. 물론 나에게도 네게 말하지 않은, 어떤—어떤 오컬트적인 방어 수단이 있긴 했지만 말이야. 결국 그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몹시 화를 내더군. 그러더니 짐을 챙겨 곧장 뉴욕으로 떠나버렸어. 보스턴행 8시 20분 열차를 타려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사람들이 수군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저 아세나스가 긴 연구 여행을 떠났다고만 말해줘.”

“그 여자는 아마 자기 추종자들 중 한 무리와 함께 머물게 될 거야. 서부로 떠나서 이혼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어. 어쨌든, 나를 내버려

두고 가까이 오지 않겠다고 약속은 받아냈어. 정말 끔찍했어, 대니얼. 그녀는 내 몸을 흠치고 있었어. 나를 밀어내고 나를 죄수로 만들고 있었다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척했지만, 늘 경계해야만 했어. 조심만 한다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 그녀는 내 마음을 문자 그대로, 혹은 아주 상세하게 읽어내지는 못하니까. 그녀가 읽어낼 수 있는 내 계획이란 그저 막연한 반항심 정도였을 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내가 늘 무력한 상태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그녀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 주문이 한두 개는 있었거든."

더비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고는 위스키를 좀 더 들이켰다.

"오늘 아침 그 빌어먹을 하인들이 돌아오자마자 전부 돈을 주고 내 보냈어. 하인들은 기분 나쁘게 굴며 이것저것 캐묻긴 했지만, 결국 떠나긴 했지. 그놈들은 아세나스와 한통속이야. 인스머스 놈들이거든. 아세나스와 손을 잡고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떠나면서 비웃던 그놈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옛 하인들을 최대한 많이 다시 불러모아야겠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댄, 자네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말할 내용들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네도 변화를 목격하지 않았나? 그날 내가 메인주에서 돌아오며 아세나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자네 차에서 일어났던 일 말이야. 바로 그때 그녀가 나를 낚아챘

어. 내 몸에서 나를 몰아낸 거라고.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자네에게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쓰던 순간뿐이야. 그러다 그녀가 나를 덮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지. 그 빌어먹을 하인들이 나를 가두어 둔 서재 안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저주받은 악귀의 몸속에서…… 그건 인간의 몸조차 아니었어. 자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타고 왔던 게 바로 그녀였다는 걸 자네도 알 거야. 내 몸을 차지한 채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같은 존재 말이야. 자네라면 분명 그 차이를 알아챘어야 했어!”

* * * * *

더비가 말을 멈추자 나는 몸서리를 쳤다. 분명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미친 듯한 설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정신이 나간 듯 찾아온 방문객은 갈수록 더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다.

“살아야 했어. 그래야만 했다고, 댄! 할로마스(Hallowmass) 때면 그녀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을 거야. 체선콧 너머 저 높은 곳에서 사바트(Sabbat)가 열릴 텐데, 그 제물로 바쳐졌다면 모든 게 끝났겠지. 그녀가 나를 영원히 차지했을 거야. 그녀가 내가 되고, 내가 그녀가 되어버리는 거지. 영원히 말이야. 너무 늦었어. 내 몸은 영영 그녀의 것이 되었겠지.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온전한 인간, 완전한 남자가 되었을 거야. 아마 나를 치워버렸겠지. 빌어먹을 그녀가, _예전에 그랬

던 것처럼_ 내 몸이 들어있는 자신의 옛 육신을 죽여버렸을 거라고. 그녀가, 혹은 그가, 아니면 그 ‘것’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에드워드의 얼굴은 이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며, 내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불편할 정도로 바짝 들이밀었다.

“차 안에서 내가 암시했던 내용을 당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아세나스가 아니라, 사실은 늙은 에프라임 그 자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일 년 반 전부터 이를 의심해 왔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여자가 방심할 때면 필체에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가끔 메모를 남길 때면 획 하나하나가 마치 에프라임의 원고와 똑같은 때가 있고, 에프라임 같은 노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의 몸을 빌려 형체를 바꾸었습니다. 적절한 지능을 갖추었으면서도 의지는 충분히 나약한 존재는 그녀뿐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내 몸을 차지할 뻔했던 것처럼, 그도 그녀의 몸을 영구적으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그녀를 밀어 넣었던 그 낡은 육체를 독살해 버린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의 눈 속에서 늙은 에프라임의 영혼이 번뜩이는 것을 수십 번도 넘게 보지 못했습니까? 그녀가 내 몸을 지배할 때 내 눈 속에서 그 영혼이 일렁이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속삭이던 그는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을 때, 목소리는 제법 평소와 비

숫해져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아세나스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자연히 나아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다시는 그 불길한 오컬트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겠네. 지금은 긴 휴식이 필요해. 그녀가 나를 이끌었던 금지된 공포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딴 구석진 곳에서 괴물 같은 사제들의 손에 의해 여전히 고통아 터지고 있는 태고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어떤 이들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결코 할 수 없어야 할 일들을 해내기도 하네. 나 역시 그 심연에 목까지 잠긴 채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끝내야겠어. 만약 내가 미스카토닉 대학의 사서였다면, 오늘 당장 그 저주받은 『네크로노미콘』과 나머지 책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을 걸세."

"하지만 이제 그녀가 나를 어찌할 수는 없을 거야. 가능한 한 빨리 그 저주받은 집에서 빠져나와야 해. 그리고 나서 고향에 내려가 안정을 찾을 생각이야. 자네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겠지. 그 악마 같은 하인들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그리고 사람들이 아세나스에 대해 너무 캐묻기라도 한다면 어찌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그 여자 주소를 알려줄 수는 없지 않나……. 게다가 어떤 추적자들, 그러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어떤 광신도 집단들이 우리가 헤어지는 걸 오해할지도 몰라. 그들 중 몇몇은 지독하게 기괴한 생각과 수단을 쓰기도 하거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네가 내 곁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아. 자네가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날 밤 나는 에드워드를 손님용 방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가 다시 더비 저택으로 돌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나는 그가 지체 없이 이사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저녁에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자주 만났다. 우리는 기괴하고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대신 낡은 더비 저택의 개보수 문제나, 다가올 여름에 에드워드가 내 아들과 나를 데리고 떠나기로 약속한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세나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주제가 유독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문은 무성했다. 하지만 오래된 크라운실드 저택의 기묘한 살림살이와 관련해서라면, 그런 소문이야 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미스카토닉 클럽에서 에드워드의 은행가가 기분이 지나치게 들뜬 나머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에드워드가 인스머스에 사는 모세와 아비가일 사전트, 그리고 유니스 밥슨에게 정기적으로 수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그 사악한 인상의 하인들이 에드워드에게 일종의 공물을 갈취하고 있

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나에게 그 일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름이 오기만을, 그리고 아들의 하버드 방학이 시작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래야 에드워드를 유럽으로 데려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에드워드의 상태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호전되지 않고 있었다. 가끔씩 보이는 고양된 기분에는 어딘가 히스테릭한 기색이 서려 있었고, 공포와 우울에 빠지는 기분은 지나치게 잦았다.

12월이면 오래된 더비 저택으로 이사할 준비가 끝날 터였지만, 에드워드는 이사를 계속 미루었다. 그는 크라우닌실드 저택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다.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행동을 늦추기 위해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냈다. 내가 이 점을 지적하자,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다시 고용된 다른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에드워드 아버지의 옛 집사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에드워드가 가끔 집 안을 배회하는 모습, 특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기괴하고 불길해 보인다고 말이다. 나는 아세나스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으나, 집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에게서 온 편지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어느 저녁, 나를 찾아온 에드워드 더비가 무너져 내린 것은. 내년 여름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더비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통제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오직 악몽의 심연만이 멸절한 정신을 가진 인간에게 선사할 수 있는, 우주적인 공포이자 혐오였다.

“내 머리! 내 머리가! 세상에, 댄—무언가 잡아당기고 있어—저 너머에서—두드리고 있어—할퀴고 있다고—그 악마 같은 여자가—지금 이 순간에도—에프라임—카모그! 카모그!—쇼고스의 구덩이—이아 (Iä)! 슈브 니구라스! 천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염소...!”

“그 불꽃은—그 불꽃은—육신을 넘어, 생명을 넘어, 대지 속에서 타오르고 있단 말이다—오, 신이시여!...”

그의 광기가 잦아들며 둔탁한 무력감에 빠져들자, 나는 그를 의자로 끌어다 앉히고 목구멍 너머로 와인을 들이부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으나, 마치 혼잣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술을 끊임없이 달싹였다. 이윽고 그가 내게 말을 걸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그 가냘픈 목소리를 붙잡으려 애썼다.

“.....또, 또다시..... 그녀가 오려 해..... 이럴 줄 알았어.....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어. 거리도, 마법도, 죽음조차도..... 그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가와. 주로 밤마다..... 떠날 수가 없어..... 끔찍해..... 오, 세상에, 댄, _제발 당신도 내가 아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라도 한다면!.....”

그가 혼미한 상태로 쓰러졌을 때, 나는 베개를 받쳐 그를 지탱해주며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두었다. 의사를 부르지는 않았다. 의사가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자연의 치유력을 믿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정에 깨어났고 나는 그를 위층 침대에 눕혔으나, 아침이 되자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빠져나간 듯했다. 전화로 집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서재를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일이 있는 후 에드워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그를 보러 갔다. 그는 늘 서재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곤 했는데, 마치 무언가 비정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기색이었다. 때때로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언제나 사소한 주제에 국한되었다. 그가 겪는 문제나 향후 계획, 혹은 아세나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그는 즉시 광분 상태에 빠져들었다. 집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밤마다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스스로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주치의와 은행가, 그리고 변호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결국 나는 의사와 두 명의 전문의를 동행하여 그를 면회하러 갔다. 첫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는 격렬하고도 가련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날 저녁,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의 가련한 육신은 폐쇄형 차량에 실려 아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는 그의 후견인이 되어 일주일에 두 번씩 그를 찾아갔다. 그가 내지르는 광기 어린 비명과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기괴한 속삭임, 그리고 "해야만 했어, 그래야만 했어. 그것이 나를 잡아갈 거야, 나를 잡아갈 거야. 저 아래, 저 어둠 속 아래에서... 어머니! 어머니! 댄! 나를 구해줘, 제발 구해줘!"라며 무언가를 끔찍하고 단조

로운 어조로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나, 나는 최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에드워드가 깨어난다면 머물 곳이 있어야 했기에, 나는 그의 하인들을 더비 저택으로 옮겼다. 그곳이라면 분명 그가 제정신을 되찾았을 때 선택할 합리적인 거처가 될 것이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구조도 복잡한 크라우닌실드 저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더비 저택의 하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주요 방들의 먼지를 털어내라고 지시했고, 보일러 관리인에게도 그날만큼은 화로에 불을 지퍼두라고 일러두었다.

마지막 악몽은 성 정례일(Candlemas)이 오기 전에 찾아왔다. 잔인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거짓된 희망의 빛을 앞세워 예고되었다. 1월 말의 어느 아침,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에드워드의 이성이 갑자기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억의 연속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나 제정신은 확실히 되찾았다고 했다. 물론 관찰을 위해 당분간은 입원을 유지해야 했지만, 경과가 좋을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그는 분명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터였다.

기쁨에 휩싸여 서둘러 달려갔지만, 간호사를 따라 에드워드의 방 앞에 섰을 때 나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환자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나를 맞이하려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

았다. 그에게서 에드워드 본래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할 정도로 생동감 넘치는 인격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내가 막연하게나마 공포를 느꼈던, 그리고 에드워드 스스로가 한때 아내의 영혼이 침입한 것이라 단언했던 바로 그 유능한 인격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세나스나 노인 에프라임과 꼭 닮은, 타오르는 듯한 안광이 서려 있었고 입매 또한 똑같이 단호했다.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에서는 특유의 냉혹하고도 스며드는 듯한 비아냥이 느껴졌다. 잠재적인 악의 기운을 물씬 풍기는 그 깊은 비아냥 말이다.

이 사람은 바로 다섯 달 전, 밤새도록 내 차를 몰았던 그 사람이었다. 예전 방식의 초인종 신호를 잊어버린 채 찾아와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그 짧은 방문 이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신성모독적인 이질감과 형언할 수 없는 우주적 흥취함이라는 그 불길한 감정을 다시금 내 안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석방을 위한 준비에 대해 상냥하게 이야기했다. 최근의 기억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 꽤 있었지만, 나는 그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끔찍하고,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이 존재 안에는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겉모습은 제정신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 자가 정말 내가 알던 에드워드 터비가 맞단 말인가? 만약 아니라면, 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진짜 에드워드는 어디로 갔는가. 이 존

재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두어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야 하는가.

그 괴물이 내뱉는 모든 말에는 심연에서 올라온 듯한 냉소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특히 '특별히 엄격한 구금' 끝에 얻어낸 초기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 아세나스를 닮은 그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조롱을 담아냈다. 나는 내가 매우 어색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그날과 그다음 날 내내 나는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에드워드의 얼굴에 깃든 그 이질적인 눈동자 너머에는 어떤 종류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일까? 머릿속에는 이 어렴풋하고도 끔찍한 수수께끼뿐이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조차 포기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회복 중인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는 연락이 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나는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나도 그 상태였음은 인정한다. 비록 다른 이들은 바로 그 상태 탓에 이후의 내 시각이 왜곡된 것이라고 단언하겠지만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다만 나의 광기 따위로써 그 '모든' 증거를 다 설명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 두 번째 저녁이 지나고 난 뒤, 어느 깊은 밤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검고 끈적한 공포가 내 영혼을 움켜쥐었고, 나는 그 공포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시작은 자정 직전에 걸려 온 전화 한 통이었다. 집안에는 나 혼자 깨어 있었기에, 나는 졸음이 가득한 채 서재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걸렸다. 누군가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간신히 말을 하려는 듯한 기척이었다.

귀를 기울이자 마치 액체가 보글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글럽... 글럽... 글럽..."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기묘하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와 음절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글럽-글럽... 글럽-글럽..." 하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저 기계적인 소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기계 고장으로 인해 소리를 듣기만 할 뿐 내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덧붙여 말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내 서비스에 다시 걸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즉시 상대방 쪽에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정이 되기 직전이었다. 나중에 그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크라우닌실드 저택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하녀가 그 집에 오기로 한 날은 그로부터 꼬박 반 주나 더 지나야 하는 때였다. 그 저택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는 그저 암시만 해두겠다. 멀리 떨어진 지하실 창고의 난장판이 된 모습, 발자국과 흙, 급하게 뒤져 헤쳐 놓은 옷장, 전화기에 남은 이해할 수 없는 흔적들, 서툴게 사용한 편지 용지, 그리고 모든 것에 배어 있는 역겨운 악취 같은 것들 말이다. 가련한 바보들인 경찰은

제멋대로 알팍한 이론을 내세우며, 지금의 소동 속에 자취를 감춰버린 불길한 전직 하인들을 여전히 뒤쫓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괴물 같은 복수극을 운운하며, 내가 에드워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연자였다는 이유로 나 또한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한다.

멍청한 놈들! 그 야만적인 광대들이 에드워드의 필체를 위조할 수 있었다고 믿는 건가? 그들이 나중에 벌어진 일들까지 불러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에드워드였던 그 육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먼 것인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는 에드워드 더비가 내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믿는다. 삶의 끝 너머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존재하며, 인간의 사악한 호기심이 때때로 그 존재들을 우리 손이 닿는 곳까지 불러내고 만다. 에프라임과 아세나스, 그 악마 같은 존재들이 그것들을 불러들였고, 그것들은 에드워드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힘은 육체의 수명이 다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날 오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걷거나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정신병원으로 달려갔다. 에드워드와 세상을 위해서라도 그를 쫓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신을 화장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병원 측에서는 여러 의사가 부검을 하겠다며 시신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장해야만 한다. 내가 총을 쏜 그 존재는, 내가 쏘았을 때 이미 에드워드 더비가 아니었으니까. 만약 화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쳐버릴 것이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의지는 약하지 않다. 내 주변에서 들끓고 있는 저 공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생명—에프라임, 아세나스, 그리고 에드워드—이제 다음은 누구인가? 나는 내 몸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정신병원에 있는, 총탄에 구멍이 뚫린 그 시체 덩어리와 영혼을 바꾸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마지막 공포에 대해 이제는 일관성 있게 말해보고자 한다. 경찰이 집요하게 무시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 새벽 2시 직전, 하이 스트리트에서 적어도 세 명의 행인이 마주쳤다는 그 왜소하고 기괴하며 악취를 풍기던 존재에 관한 이야기나, 특정 장소에서 발견된 외발 자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저 2시 무렵, 초인종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는 사실만을 말하겠다. 초인종과 문 두드리는 소리는 번갈아 가며 불확실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무언가 절박한 마음을 담아 힘겹게 시도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에드워드가 예전에 쓰던 신호, 즉 세 번과 두 번을 번갈아 두드리는 규칙을 따르려 애쓰고 있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내 정신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더비가 문 앞에 있다니, 게다가 그 옛날의 암호를 기억해내다니! 그 새로운 인격은 암호를 기억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에드워드가 갑자기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인가? 그는 왜 이토록 명백한 긴장과 다급함 속에 이곳에 나타난 걸까? 예정보다 일찍 풀려난 것일까, 아니면 탈출한 것일까?

나는 가운을 걸쳐 입고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며 생각했다. 어쩌면 본래의 자아로 돌아온 것이 광기와 폭력을 불러일으켰고, 그 때문에 퇴원 조치가 취소되어 필사적으로 자유를 찾아 달려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에드워드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를 도와야만 했다.

* * * * *

느릅나무 아치 너머의 철책 같은 어둠 속으로 문을 열자, 참을 수 없이 악취 나는 바람이 몰아쳐 나를 거의 바닥에 고꾸라뜨릴 뻔했다. 구역질이 올라와 숨이 막혔고, 그 찰나의 순간 계단 위에 서 있는 왜소하고 굵은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를 부른 것은 에드워드였는데, 대체 이 불쾌하고 기형적인 흉물은 누구란 말인가? 에드워드가 대체 어디를 다녀왔단 말인가? 문을 열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의 초인종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다.

방문자는 에드워드의 외투 중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 옷자락은 바닥에 닿을 듯 길었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으나 손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검은 실크 머플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가서자, 그 형체는 내가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것과 같은, 마치 액체가 출렁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글럽... 글럽..." 하는 소리였다. 그러고는 긴 연필 끝에 뽁뽁하게 글씨를 쓴 커다란 종이를 내밀었다. 그 기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악취에 정신이 아득해진 상태였지만, 나는 일단 종이를 낚아채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빛에 의지해 읽으려 애썼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에드워드의 필체였다. 하지만 벨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으면서 왜 굳이 글을 남긴 것일까. 그리고 왜 필체가 그토록 어색하고 거칠며 떨리고 있었단 말인가. 어둑한 반명 속에서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복도로 몸을 피했다. 난쟁이 같은 형체는 기계적인 걸음걸이로 내 뒤를 쫓아오다 안쪽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이 기이한 전령에게서 풍기는 악취는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였다. 나는 아내가 깨어나 그 괴물과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행히도 내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공포로 굳어버린 손에는 그 저주받은 종이가 여전히 움켜쥐어져 있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댄, 요양원으로 가서 그것을 죽여줘. 박멸해버려. 이제 에드워드 더 비는 없어. 그녀가 나를 잡아챘어. 아세나스야. 그녀는 이미 석 달 전에 죽었어. 그녀가 멀리 떠났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어. 내가 그녀를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때 우린 단둘뿐이었고 나는 내 본래의 몸 안에 있었어. 쫓대를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어. 그대로 뒀다면 할로마스에 그녀가 나를 영원히 차지해 버렸을 거야.”

"그녀를 더 깊은 지하 저장실 안, 낡은 상자들 아래에 묻어버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의심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그들은 저마다 숨기는 비밀이 많아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하인들은 모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그 종교 집단의 다른 자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일입니다."

한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다 뇌를 잡아당기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진작 기억해 냈어야 했다. 그녀나 에프라임 같은 영혼은 육신이 붙어 있는 한, 죽음 이후에도 육체에 반쯤 매달려 계속해서 따라붙는다. 그녀가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몸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내 몸을 강탈해 나를 지하실에 묻힌 그 시체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렸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닳았다.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상자들 아래에 처박아 두었던, 지하실 밑바닥에 썩어가는 아세나스의 시체 속에서 나는 질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세나스는 정신병원에 있는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영원히 말이다. 할로마스(Hallowmass)가 지난 뒤였으니, 그녀가 직접 그곳에 없더라도 제물은 효력을 발휘할 터였다. 이제 그녀는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에 재앙을 뿌릴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나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나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기어 나왔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말로 할 수가 없네. 전화조차 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글은 쓸 수 있어. 어떻게든 몸을 추스른 뒤에, 이 마지막 말과 경고를 전하러 가겠네.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소중히

여긴다면, 제발 그 악마를 죽여주게. 그리고 반드시 화장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육체에서 육체로 옮겨 다니며 살아남을 거야.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네. 흑마술은 멀리 하게, 댄. 그건 악마의 장난일 뿐이야. 작별을 고하네. 자네는 내게 정말 큰 친구였어. 경찰이 믿어줄 만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말하게. 이런 끔찍한 일을 자네에게 떠넘기게 되어 정말 미안하네. 머지않아 나는 평온을 찾을 거야. 이 괴물도 이제 오래 버티지는 못할 테니까. 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네. 그리고 그놈을 죽이게. 반드시 죽여야 하네."

“자네의 벗, —에드.”

이 기록의 나머지 절반을 읽은 것은 그 일이 모두 끝난 후였다. 세 번째 단락의 끝자락에서 나는 이미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따스한 공기가 닿아 문턱을 어지럽히고 있던 그것을 목격하고,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기절하고 말았다. 전령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의식을 되찾지도 못했다.

나보다 담력이 센 집사였기에, 아침 복도에서 마주한 광경을 보고도 기절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위층 침실로 옮겨진 뒤였으나, 그—또 다른 덩어리—는 밤사이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경찰들은 코에 손수건을 갖다 대었다.

에드워드의 기묘하게 뒤섞인 옷가지 안에서 마침내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 수 없이 녹아내린 공포 그 자체였다. 뼈들도 섞여 있

었는데, 그중에는 짓눌린 해골 하나도 있었다. 치과 치료 흔적을 통해 그 해골이 아세나스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